



김제민 작 '잡초와의 인터뷰II-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채색 자연이 초록으로 물들다

삼월,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 물기를 머금은 연둣빛 초록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다. 수많은 색 중 아마도 '봄'을 알리는 전령은 다채로운 초록이 아닐까. 각종 나무의 잎사귀와 풀, 잡초와 이끼 등 자연 속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초록은 우리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물하기도 한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신춘 기획전 '또 다른 그린'전을 오는 4월 3일까지 개최한다. 전시에는 봄의 풍경과 그 속에 살아가는 생명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여섯 명의 작가를 초대했다.

작가들은 전시 주제처럼 '녹색(綠色, GREEN)'을 주 테마색으로 삼아 워드있고 감각적인 회화와 드로잉 40여점으로 봄의 기운을 전한다.

김제민 작가의 '잡초와의 인터뷰II-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는 유쾌하다. 작품 속 주인공은 의인화된 초록색 잡초다. 가느다란 몸매의 그는 여행을 꿈꾸고, 지구 정복을 원하고,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싶어한다. 선베드에 누워 망중한을 즐기고, 사랑도 하고 싶다는 잡초를 보며 우리의 일상을 떠올리게 되는 건 자연스럽다.

박형진 작가의 '남겨진 정원' 등의 작품은 초록이 가득한 정원 속에 감춰진 마르티시카, 곰돌이 인형 등 어릴 적 추억이 담긴 물건 등을 함께 배치해 동심을 자극하며 이지연 작가의 'May Flower'는 다양한 느낌의 초록과 화려한 꽃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화면을 만들어낸다.

또 나무의 재, 모래, 흙 등 자연에서 채취된 안료를

광주신세계갤러리 신춘기획전 4월3일까지 김건일 등 6명 참여

사용해 일상 속 자연에 대한 중요성과 공존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건일 작가의 '없는 풍경' 등의 작품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선사하며 임현경 작가는 비단에 수묵담채로 그린 '정원의 장막', '숲의 답장-

붉은 커튼' 등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밖에 김건일 작가는 단순한 듯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복잡한 '상상의 숲'을 매개로 인간의 기억과 마음의 구조를 쏟아내는 초록과 더불어 은유적으로 형상화했다.

갤러리 아트숍에서는 참여작가들의 기존 작품도 판매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지연 작 'May Flower'

이이남 작가와의 대화 '보이는 것 이면의 보이지 않는 것'

9일 G.MAP 1층 미디어라운지 서울 엔버갤러리서 '조우'전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은 미디어 아트 특별전시 '이이남 -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연계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9일 오후 2시 G.MAP 1층 미디어 라운지에서 열리는 작가와의 대화에서는 이이남 작가가 '보이는 것 이면의 보이지 않는 것'을 주제로 인간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 현대인의 불안과 내면에 스민 빛에 대해 이야기한다.

4월 중에는 작가와 보다 깊이 있는 교감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미술평론가 등 전문가 패널과 함께 하는 좌담회도 추가로 마련한다.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에서 출발해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는 특별전시 '이이남 -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오는 4월 30일까지



G.MAP에서 열리는 '이이남 -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전

계속된다. 선착순 30명 마감. 문의 062-613-6124.

한편 이이남 작가는 서울 엔버갤러리(NvirGallery)에서 오는 4월16일까지 '조우(邂逅): Encounter'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전시에서는 '꽃은 어디에서 오는가 I, II' 시리즈 등 동서양 고전이 접목된 작품과 NFT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전시 작품을 선보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도서관, 3~4월 주제는 '아시아 영화와 극'

'왕가위', '박찬욱의 오마주', '음악 본능', '나는 음악에게 인생을 배웠다', '음악 인류'...

영화로 아시아 문화 풍경을 들여다보고 음악도 만날 수 있는 독서여행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이 ACC 도서관 도서추천서비스(북큐레이션) 3~4월 주제를 '아시아 영화와 극'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권역 영화와 극 이야기를 다룬 문화예술 도서 40여 권을 소개한다. 오는 4월 30일까지 도서관 이벤트 홀.

이번 도서추천서비스는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한국 영화를 비롯해 중국과 인도, 일본, 이란, 대만 등 아시아 권역의 영화를 책으로 만나는 시간

이다.

'왕가위', '박찬욱의 오마주' 등을 통해선 아시아 대표 영화감독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영화로 떠나는 동아시아 기차 여행', '도시의 확장'과 변형: 문화와 영화'는 영화라는 낯설고도 친숙한 거울로 아시아 국가의 문화 풍경을 조명한다.

아울러 ACC 도서관은 봄날에 어울리는 음악 이야기를 찾아내 다채로운 만남도 마련했다.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를 비롯해 '그럴 때 우리 이노 램 듣지', '나는 음악에게 인생을 배웠다' 등은 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안내 역할을 해준다. 또한 '음악 인류'와 '음악 본능'은 인간이 음악에 빠져드는 근본적인 물음을 떠올려보게 한다.



북큐레이션 대표 도서

한편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추천도서를 매개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경험을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음악이 들려주는 기쁨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통미술대상' 서예가 류봉자 수상

지난해 결성된 광주전통미술연합회(회장 정광주)는 지역 전통미술의 계승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임에는 서예, 문인화, 한국화, 민화 작가 60여명이 참여했다.

광주전통미술연합회가 수여하는 '제1회 광주전통미술대상' 수상자로 서예가 소현 류봉자(사진) 작가가 선정됐다. 대상은 지역 전통미술분야에 업적과 공로가 큰 원로 중진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상금은 300만원.

시상식은 오는 3월 9일 오후 5시 30분 광주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리는 창립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룡 김용구 선생에게 글씨를 배우기 시작한 류봉자 작가는 소암 현중화 선생의 문하에 입문, 광주 소목회를 이끌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현서예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후학을 배출했다.

한편 광주전통미술연합회는 창립전에 참가하는 회원들 중 2명을 선정, 최우수상을 시상하고 상금 50만원과 광주미술협회장상을 수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장자 외편"은 상큼한 풋사과

양희석 전남대 명예교수 '장자 외편' (外篇) 펴내

7일~5월 23일 '도덕경' 강독

"내편이 썩 구슬이라면, 외편은 아직 썩지 않은 구슬이다. 그 구슬을 썩는 역할은 우리의 몫이다. 내편이 농익은 수밀도라면 외편은 상큼한 풋사과이다."

양희석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장자 외편' (外篇) (마로니에)을 펴냈다. 2300여년 전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인 장자의 언행을 기록한 고전 '장자'는 내편 7편, 외편 15편, 잡편 11편 등 총 33편으로 이뤄져 있다.

양 교수는 '젊은 철인(哲人)의 길 찾기'라는 부제를 붙인 '장자 외편' 서문을 통해 '구만리 창공을 웅비하는 봉새로 상징되는 장자의 기질과 풍격의 측면에서 보자면 노자의 음유(吟詠)를 닮았기보다는 오히려 공자의 양강(陽剛)에 가깝다'면서 "이러한 사실은 외편에 기록되어 있는 '젊은' 장자의 '언행'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중국 고전문학을 전공한 양 교수는 고전 '노자 도덕경'과 '장자'를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역해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2월 '노자 도덕경'과 '장자 내



편' (內篇)을 펴냈고, 앞으로 '장자 잡편' (雜篇)을 역해해 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 교수는 오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행인학당 동양고전 강좌'를 연다.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노자 도덕경' 중 도경(道經-1-37장)에 이어 덕경(德經-38-81장)을 강독한다.

장소는 동명동 카페 '프라이믹' (광주시 동구 장동로 25)이며, 수강료는 12만원이다. 수강문의(010-2886-3201) 한편 양 교수는 지난해 정년퇴임한 후 '장자'와 '노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인학당 동양고전 강좌'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문화학교 프로그램 강사 공모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 빛고을국악전수관이 국악문화학교 프로그램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판소리, 장구, 민요, 가야금, 대금, 고법, 해금, 가야금병창, 정가, 어린이 가야금, 어린이 해금 등 11개강좌 11명으로 마감은 오는 14일이다.

응모 자격은 전문분야 경험을 가진 강사 또는 예고, 대학,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로 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으며 무형

문화재 및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자 등이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 이력서(사진부착),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경력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악문화학교는 매년 15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는 등 국악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참가작 모집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토요상설공연' 참가작품을 모집한다. 공연 작품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무대로 한정한다.

공모신청은 공연 22회와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예능보유자(단체)를 초청한 기획공연 8회로 구성된다.

접수는 오는 13일 오후 6시, 광주문화재단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 (gc_f_art@naver.com) 접수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총 16명 개인, 14개 단체(▲판소리, 산조 각 분야별 8인 총 16인 ▲국악장차

무대 7개 단체 ▲전통연희 또는 무용작품 7개 단체)이다. 선정된 판소리·산조 개인에게는 출연료 100만원, 국악장차·전통연희·무용 단체에는 출연료 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자세한 공고문 참조. 단 '2022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에 참여한 단체(개인)는 접수 불가하다. 또한 2023년도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사업(통합공모)에 2건 이상 선정된 단체(개인)도 제외된다. 문의 062-670-850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